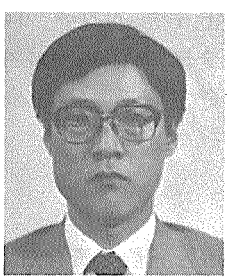
1988年 國內外 經濟 展望



박 재 준
韓国銀行 調査第1部 次長

1988년의 국내 경제는
원화 절상, 시장개방 압력의
강화,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높은 임금상승 영향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어 경제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고용의 증가세도 둔화되고 또한
물가안정기조도 官民 협조가
없이는 흐트러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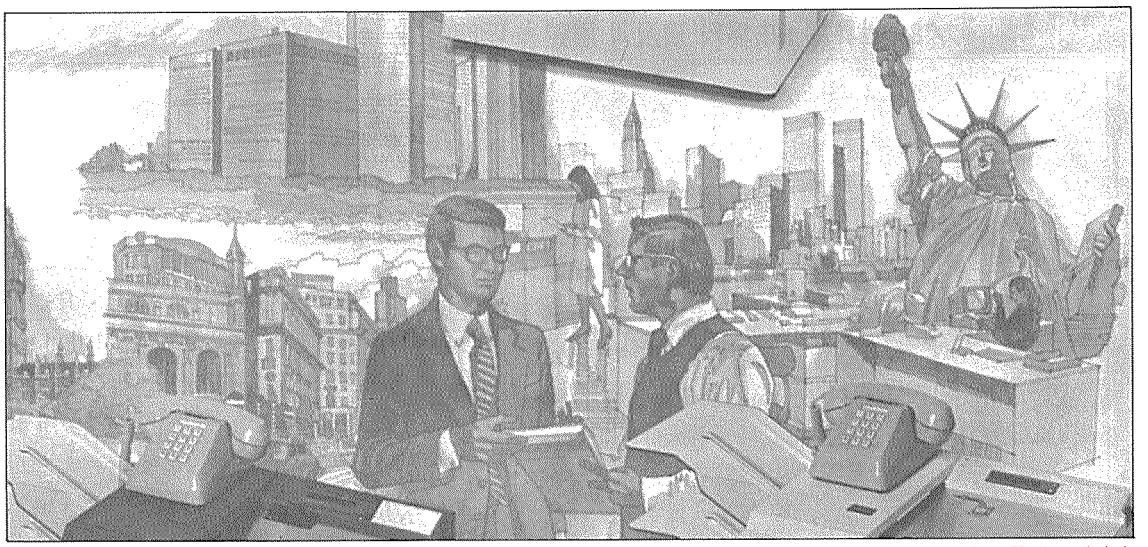
1. 世界經濟 展望

1987년중 世界經濟는 상반기에 美国·日本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주요 선진국의 換率 金利 등 주요 가격변수가 크게 불안정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가운데 10월의 세계적인 株価波動 이후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1988년중에는 世界經済成長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던 선진국간 経常収支 不均衡現象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先進国 経済는 주가폭락에 따른 민간소비의 위축 등으로 成長率이 전년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物価上昇率은 国際原資材価格의 완만한 상승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압력 완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世界交易 伸張率은 선진국 경제의 저성장 및 保護貿易主義 強化에 따른 輸入需要 부진으로 역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한편 国際金融市場에서는 유로달러 금리가 경기부양을 위한 미국의 金融緩和政策 등으로 弱保合勢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美달러貨는 미국의 経常収支 赤字가 현저히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対外債務의 累増 등으로 美 달러 貨에 대한 信認度도 저하됨으로써 약세기조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 経済成長

1988년중 先進国 経済는 지난 10월의 주가폭락에 따른 資産減少効果로 민간소비 및 투자지출이 감소하여 성장률이 전년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선진국 경제가 침체국면에까지 이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는 주가파동 이후 주요 선진국이 金融政策을 緩和基調로 전환하는 등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성장을 제약하여 왔



금년에는 수출신장세의 둔화, 수입증가세의 지속으로 경상수지는 다소 줄어들 것이다.

던 国際収支 不均衡도 선진국간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협조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년중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을 OECD, IMF, NIESR 등 주요 기관의 経済豫測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美国은 전년보다 다소 낮은 2.5%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美 달러 貨의 약세 지속으로 輸出이 소폭 늘어날 것이나 株価暴落과 財政赤字 減縮政策의 영향으로 소비지출 및 기업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日本의 経済成長率도 엔貨 強勢에 따른 수출부진 지속과 주가폭락의 영향 등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3%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日本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経済成長을 이룰 것으로 보는 것은 작년 5월에 발표된 공공지출 확대, 소득세 감면 등 총 6조엔 규모의 緊急経済対策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민간소비지출 및 정부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엔貨 強勢에 대응한 기업의 설비투자가 본격화되는 등 国内需要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西유럽経済는 経済成長率이 2% 내외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西独은 연초부터 시행되는 감세 및 금리인하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높아질 것이나 마르크貨 強勢에 따른 해외부문의 성장둔화로 지난해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英国은 석유생산의 감소와 수출 및 국내수요 부진이 예상되어 経済成長率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 역시 프랑貨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対外競争力의 열위로 뚜렷한 수출 신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소비 및 투자지출도 크게 늘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전년과 비슷한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나. 物価

1988년중 先進国 物価는 国際原資材価格의 완만한 상승세와 金融緩和政策의 지속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등 일부 상승요인이 있으나 선진국 경제성장의 저조로 인한 需要圧力의 완화로 전년 수준과 비슷한 上昇率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国際原資材価格 역시 완만하게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国際原油価는 전년의 평균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美 달러貨의 지속적인 약세에 따라 저하된 실질구매력을 회복시키려는 OPEC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需要側面에서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라 原油消費가 1% 내외의 증가에 그치는 한편 供給側面에서 OPEC의 쿼터수준 초과생산 등으로 供給過剰現象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原油 이외의 原資材価格은 식료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으로는

지난해의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美 달러 貨의 약세 지속과 世界農産物市場에서의 供給過剩現象 완화 및 일부 생산국들의 供給調節能力 확충 등이 価格上昇要因으로 작용할 것이나 原資材生産 開途国의 外債償還을 위한 생산증대와 세계경제의 회복세 부진 등이 価格下落要因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 世界交易과 経常収支

지난해 크게 둔화되었던 先進国의 輸入物量 増加率은 1988년중에도 그다지 확대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非産油開途国의 수출 신장세도 저조하여 世界交易은 대체로 금년과 비슷한 4% 내외의 신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先進国 輸入이 이처럼 부진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선진국 전체의 경제성장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美달러貨의 약세 지속 등으로 美国의 輸入物量 増加勢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상수지 적자와 失業問題에 직면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의 소극적인 시장개방과 輸入制限措置 등도 세계교역 신장세의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요 선진국간 経常収支 不均衡現象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선진국간 換率調整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美国의 경우 財政赤字 減縮 등이 경상수지 적자 축소의 계기

世界経済 展望

	1986 (OECD)	1987e) (OECD)	1988e) OECD	IMF	NIESR
経済成長率(%)					
先 進 国	2.8	2.75	2.25	2.6	2.3
美 国	2.9	2.75	2.5	2.7	2.4
日 本	2.6	3.5	3.5	3.4	3.0
西유럽	2.7	2.25	1.75	2.0	–
国際原資材価格					
原 油(달러/bbl)	13.3*	17.0*	–	17.6*	–
其 他(騰落率, %)	-1.1**	-2.2**	–	4.6	–
世界交易 및 経常収支					
世界交易 伸張率(輸出入平均, %)					
世界交易量	4.5	3.75	4.5	4.4	4.0
先進国 輸入物量	8.7	5.0	4.0	3.6	3.2
経常収支(億달러)					
先進国 経常収支	-228	-460	-500	-442	-300
美 国	-1,414	-1,560	-1,340	-1,406	-1,140
日 本	858	860	810	832	730
国際金利 및 換率					
유로달러金利(3個月満期,	6.83	7.19	–	–	7.88
期間平均, %)#	〈6.15〉	〈7.97〉			〈7.70〉
換 率(期末)					
엔/달러	160.1	122.0	115.0##	–	–
마르크/달러	1.941	1.579	1.470##	–	–

* OPEC 平均輸出価格 基準　　** IMF 数値임
# 〈 〉내는 4/4分期 基準　　## WEFA 展望値임

資料 : OECD, OECD Economic Outlook (1987. 12)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87. 10)
NIESR,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1987. 11)
WEFA, Foreign Exchange Rate Outlook (1988. 1)

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대외채무 증가로 인한 利子支給의 증대 등으로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日本 및 西独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미국의 수입수요 둔화를 主因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国際金利 및 換率

国際金利는 대체로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国金利의 경우는 상반기중에 株価波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金融緩和政策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財政赤字 縮小로 인하여 金利上昇 圧力도 완화됨에 따라 금리는 弱保合勢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西独 등 西유럽 諸国에서도 환율안정과 내수진작을 목적으로 한 金融緩和政策이 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美 달러 貨는 1988년중에도 약세기조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美 달러貨 약세의 근본원인인 美国의 財政 및 経常収支 赤字가 연중에 현저히 해소될 것으로는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美国金利의 하락과 엔貨 및 마르크貨 등 強勢通貨의 国際基軸通貨 역할 분담에 따른 美 달러 貨의 수요 감소도 美 달러 貨 시세를 하락시키는 한 要因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美 달러 貨 価値의 급속한 하락은 美国으로부터의 資本流出 및 輸入物価 昂騰 등을 야기하는 한편 여타 선진국의 수출둔화 및 수입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美 달러 貨 価値의 하락은 대체로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 國內經濟 展望

1987년중 国内経済는 1986년에 이어 製造業을 중심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비록 하반기 들어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어났던 労使紛糾와 이로 인한 생산 및 수출 차질, 높은 임금인상, 투자위축 우려 등 경제불안요인이 나타났으나, 장기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賃金引上効果를 제외하고는 노사분규에 따른 生産活動 위축은 3.4분기중에 일단 마무리됨으로써 国内経済는 꾸준한 수출증대와 설비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12%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988년중 국내경제는 원貨 切上 및 市場開放에 대한 圧力의 강화, 선진국의 輸入規制 強化 및 지난해의 높은 賃金上昇의 영향 등으로 輸出과 設備投資 増加勢가 둔화됨으로써 経済成長率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雇傭도 경제성장의 상대적둔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失業率이 지난 해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物価는 지난해 노사분규에 따른 높은 賃金上昇, 経常収支 黒字에 따른 해외부문의 通貨増発圧力 지속 예상, 총선 및 올림픽 特需에 따른 過消費 유발 가능성,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物価不安要因이 상존하고 있어 政府의 물가안정노력과 民間의 협조 없이는 지난 수년간의 物価安定基調가 흐트러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経常収支는 선진국의 수입수요 감소와 원화절상 및 높은 임금인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輸出伸張勢가 둔화되고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및 수입개방 확대로 輸入増加勢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 経済成長

1988년중 国内経済는 과거 견실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였던 輸出 및 設備投資 伸張勢가 둔화됨으로써 12%를 상회했던 지난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8~9%의 成長率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지난 두해 동안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여 経済成長을 주도하여 왔던 輸出은 1988년중 그 증가율이 뚜렷하게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0월의 주가폭락 및 재정적자 감축계획에 따라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美国을 비롯하여 주요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원화절상 및 높은 임금상승으로 우리나라 상품의 価格競争力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固定投資 역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전

망이다. 비록 부동산 경기의 회복으로 住宅建設이 확대되고 公共建設도 地域開発事業의 본격화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設備投資가 수출신장세의 둔화와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 노사분규의 재발가능성 등으로 86년의 31.4%, 87년의 18.9%보다는 크게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면 総消費는 전년에 이어 비교적 높은 增加率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民間消費가 경제성장률의 상대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고성장 및 높은 임금상승에 따른 所得增大와 각종 선거 및 올림픽에 따른 特需 要因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生産部門別로는 製造業 成長率이 수출 및 설비투자의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建設 및 電気 가스 水道事業은 주택건설 및 공공건설의 확대와 원자력발전 및 LNG공급 증대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비스業은 수출입 증가율의 하락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반면 지난해 水害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던 農林漁業은 평년수준을 회복할 경우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雇傭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크게 호전되었던 雇傭事情은 1988년중 경제성장세 둔화 및 높은 임금상승으로 노동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国内市場의 개방 및 원화절상 가속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技術的 摩擦的 失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失業率이 상당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지난해와 같이 労使紛糾가 재연되어 다시 賃金이 대폭 상승할 경우 기업의 노동절약적 설비투자 증대 및 신규고용 회피 등을 유발하여 雇傭事情은 더욱 악화되고, 특히 経済成長이 예상보다도 부진할 경우에는 失業率이 4%에 이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物価

지난해 物価는 農林水産品 価格의 상승, 賃金 및 輸入物価의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두차례에 걸친 정부의 강력한 物価安定対策에 힘입어 전반적인 안정기조를 유지하였다. 1988년중에는 임금 및 수입물가의 상승 등 費用側面의 物価上昇要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通貨供給 拡大 및 消費需要의 增大 가능성 등 수요압력도 해소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작년보다는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와 같이 물가안정을 위해 国内油価의 引下調整과 特別消費税의 引下, 通貨管理의 강화 등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원화절상의 효과 등도 기대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전년보다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년중 都売物価가 2～3%, 消費者物価가 4～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년중에는 특히 물가안정이 경제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주식 및 부동산시장의 投機機微와 높은 賃金上昇이 고성장에 따른 所得增大와 함께 相乗的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며, 높은 賃金上昇을 製品価格에 전가하려는 기업체의 요구도 정치적 전환기 및 경제운용에 있어서의 자율화 분위기를 틈타 현재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총선, 올림픽 등을 전후한 과소비 유발 가능성,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자극받은 농민 및 서비스 종사자의 所得補償 要求的 価格引下 가능성 등도 物価不安要因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経常収支

지난해 100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経常収支는 1988년중에도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선진국의 保護貿易主義 강화와 원貨 切上 및 노사분규에 따른 賃金引下 등의 영향으로 수출신장세가 둔화될 것이고 対外通商摩擦과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通貨增発圧力 해소를 위한 수입개방정책 등 経常収支 黒字規模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政府의 政策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흑자규모는 전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금년 輸出을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520억달러(通関基準)로 전망하고 있다. 輸出伸張率이 이처럼 전년중의 36%에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保護貿易主義가 강화되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원貨 切上 및 賃金引上 등으로 우리나라 상품의 価格競争力도 약화될 것이며 전년중 급증하였던 自動車, 電子 등 신상품 수출도 증가율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輸入은 美 달러 貨 약세에 따른 輸入単価의 상승,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内需拡大, 원貨 切上 및 정부의 市場開放政策 등에 따라 전년보다 22% 증가한 496억달러(通関基準)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8년중 貿易収支黒字 規模는 전년의 75억달러에서 45억달러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貿易外去来는 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광수입 증대와 外債残額의 축소에 따른 外債利子支給의 감소 등 흑자증대요인이 있으나, 적정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관리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海外旅行 및 각종 外換支給規制가 대폭 완화되는 등 흑자감소요인이 증대됨에 따라 黒字規模가 소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년중 経常収支는 지난해보다 크게 축소된 60억달러 수준의 흑자를 보일 전망이다.

国内経済 展望

	1986	1987e)	1988*
経済成長率(%)			
GNP成長率	12.3	12.2	8.0
(1人当 GNP, 달러)	(2,300)	(2,813)	(3,300)
民間消費	6.4	7.2	7.8
固定投資	15.4	13.5	9.5
商品輸出	26.3	23.8	6.6
失業率(%)	3.8	3.3*	3.7
物価騰落率(%)			
都売物価**	-3.7 〈-2.2〉	1.7 〈0.3〉	2~3 〈 . .〉
消費者物価**	1.3 〈2.3〉	5.8 〈3.2〉	4~5 〈 . .〉
経常収支(億달러)			
経常収支	46	98*	60
貿易収支	42	75*	45
輸出(通関基準)	347	471	520
(増加率, %)	(27.7)	(35.7)	(10.4)
輸入(通関基準)	316	406	496
(増加率, %)	(12.5)	(28.4)	(22.2)
貿易外収支	-6	12*	8
移転収支	10	11*	7

* 政府展望値 ** 末月 基準, 〈 〉内는 年平均 基準

資料 : 経済企劃院, 経済安定基盤의 強化와 88年度 経済展望 및 課題(1987. 12. 23)